

창 간 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산업혁명 이래 200여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공업사회가 물러가고 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물결이 거세게 들이 닥치고 있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물결에 의해 열리는 세계는 물질적 자원보다는 지적 자원이 증시되는 세계이며, 물질의 전송로인 도로망에 대신하여 지식의 전송로인 정보망이 국가발전의 기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입니다. 또한 지식이 정보라는 형태로 상품화되어 종래의 물질적인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갖게되어 무형의 자원인 정보를 가공·처리·축척·전달할 수 있는 지식집약적인 전자·통신·컴퓨터산업이 21세기의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고도의 정보처리능력을 갖는 컴퓨터와 고속 디지털화되어가는 통신간의 유기적인 결합은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신종 정보산업들은 자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두뇌가 우수하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아주 적합한 산업으로 생각되며, 2000년대 세계 10위권의 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잡·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추세를 예의주시해가면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에는 첨단기술의 발전추세로 인해 이에 관련된 정보량도 크게 늘어나 그동안 소내의 연구활동을 소개해온 “전자통신”과 외국의 단편적인 동향을 알려온 “주간기술동향”의 사실전달적인 기능을 크게 보완할 필요성이 증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정보의 분석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세계각국의 첨단기술동향을 보다 심도있게 제공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전문분석지 “전자통신동향분석”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의 국제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지가 관계자 여러분들께 세계첨단기술의 움직임을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분석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1986년 7월

소장 경 상 현